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UPREME JUSTICE

가제 : 가장 위대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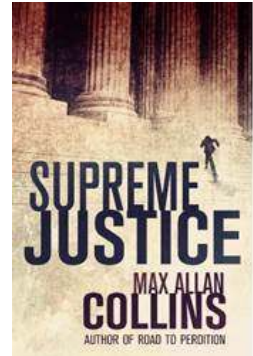
저자 : Max Allan Collins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4년 7월 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워싱턴의 어느 음식점에서 총에 맞은 극보수주의 판사, 강도를 가장한 살인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지독한 보수주의자로 악명이 높고 일 밖에 모르기로 유명한 연방 대법원 흑인 판사 헨리 벤틀러. 그 밑에서 사무관으로 근무 중인 니콜라스 블런트는 오늘도 어느 때와 다름 없이 길고 지루한 하루를 보내는 중이었다. 헨리 벤틀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은퇴할 나이를 이미 지났지만, 투철한 직업의식 때문인지 지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 법원 전체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사람이었다.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는 지금도 벌써 열두 시간 짜 업무 중이지만, 사무실 불이 꺼지려면 아직 한 두시간은 더 있어야 한다.

“허드슨 씨를 부를까요?” 두툼한 손을 얼굴에 대고 한숨을 쉬는 판사의 얼굴을 보면서, 니콜라스는 벤틀러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다. 허드슨 씨는 판사의 운전사다. “자네, 시간 되면 한 잔 하지 않을텐가?” 놀랍게도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니콜라스가 사무관으로 일한 지난 6개월 동안, 벤틀러는 그와 식사는 고사하고 커피 한 잔도 같이 마신 적이 없었다. “네, 물론 괜찮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버디 칠팔하우스’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판사들과 법원에서 일하는 직급 높은 직원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이다. 아버지가 상원의원이고 형은 주지사라 미국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자주 있어 본 니콜라스인데도, 홀에 가득한 면면을 보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전 국회의원, 전 대법원장, 현 CIA 국장, 핵심 금융기관의 CEO 두 사람까지... 벤틀러 판사와 니콜라스는 각각 스카치와 마티니를 주문했다.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미래의 어느 날. 워싱턴 D.C의 어느 음식점에 총을 든 복면 강도 두 명이 난입하여 소동을 벌인다. 대법원 판사인 헨리 벤틀러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오바마에 이어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승리한 그레고리 왓슨 베넷 대통령 정권에서 수십년 전 낙태의 권

리를 인정하여 큰 논란을 낳았던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애국자법’을 강화하는 한편 수정헌법 제 4조를 기각하는 등 지독한 보수주의자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었다. 강도가 침입한 당시 음식점에는 다른 정부 고위관료들을 비롯해 대통령도 경호원 없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미국 정치계의 현실과 미래, 얽히고 설킨 정치적 관계를 오가며 긴박하게 전개되는 스릴러

벤티 판사는 강도들의 눈을 피해 갑자기 움직이다가 범인 한 명이 쏜 총에 저격당해 사망하고 만다. 마침 음식점에 들어서던 첩보원 출신 조 리더는 혼란 속에 재빨리 대통령을 보호하다 강도가 쏜 총알을 대신 맞고 일약 영웅이 된다. 하지만 평소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한 리더는 자신이 목숨을 살린 대통령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숨김 없이 내뱉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연방 경찰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그의 친구이자 FBI 요원 게이브 슬로안은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의 통찰력을 그냥 묵히기 아깝다고 판단하고, 벤티 판사의 사망 사고 조사를 위해 꾸려진 다기관 특별조사대에 리더를 고문으로 앉힌다. 다른 사람의 몸짓만 보고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리더는, 음식점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사건 당시 영상을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낸다. 범인은 강도 행각을 벌이다 판사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분명 사전에 이미 계획된 살인이었다. 급기야 보수적인 성향의 또 다른 판사 한 명이 살해되고, 리더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모든 사건의 지휘자가 이제 막 거대한 범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데.. 보수적 성향의 주요 인물만 골라 해치는 범인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새로운 집단인 것일까? 리더는 표적이 될 만한 다른 인물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베일에 쌓여있는 계획의 전말을 밝혀내야 한다.

<저자 소개>

맥스 알란 콜린스(Max Allan Collins)는 ‘샤머스 상(Shamus award)’에 수많은 소설로 수상 후보에 오른 뒤 결국 <Nathan Heller>시리즈로 Private Eye Writer of America 상을 수상했다. 그의 그래픽 노블인 《로드 투 퍼디션》은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아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같은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그 외 수많은 서스펜스 스릴러 작품을 집필했다. 또한 네 편의 영화와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감독하기도 했으며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기도 했다.

제목 : THE DIVER'S CLOTHES LIE EMPTY

가제 : 잠수부의 옷만 덩그러니 남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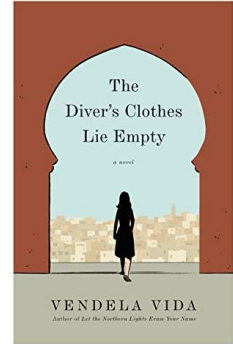
저자 : Vendela Vida

출판사: Ecco

발행일: 2015년 6월 2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소설



카사블랑카로 떠난 여자, 낯선 땅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신분증과 새로 갖게 된 정체성

비행기에 오른 그녀는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옆자리에 이미 앉아 있는 남성을 힐끗 확인하고는 꽤 잘생기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다. 마이애미에서 카사블랑카로 떠나는 두 번째 여행에서 그녀는 긴 비행거리만으로도 이미 지난 두 달간 겪은 끔찍한 일들이 마음 속에서 사그라들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옆자리 남성은 서른 셋 정도,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고 역시나 혼자 여행하는 것 같다. 무릎 위에는 신문 두 부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아랍어, 다른 하나는 영어가 가득하다. 잘만 되면 카사블랑카에서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을텐데. 하지만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자는 카사블랑카까지 계속 잠을 잘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러더니 얇은 입술로, 보기에든 민망할 정도로 있는 온 힘을 다해 겨우 목베개에 바람을 불어넣고는 요상한 보랏빛이 도는 혀를 내밀어 작은 알약 하나를 삼키고 베개에 얼굴을 대고 이내 침묵에 빠졌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기내 여기저기 참다못한 아기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모로코 가이드책을 펼친다. “카사블랑카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카사블랑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카사블랑카에 있는 호텔에서 3일이나 예약한 참이었다. 호텔을 예약하고 돈을 치르기 전에 이 책을 왜 읽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날 법도 하지만, 대신 그녀는 모로코에서 3일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책에 화를 내기로 한다. 바로 책장을 덮어버리고 배낭 깊숙이 쑤셔넣은 뒤, 이번에는 카메라를 꺼내든다. 구입한지 몇 달이나 됐고 이미 사용하기도 했지만 상자에 동봉된 카메라 설명서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

한 사람의 정체성, 자유의지의 의미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상기시키는 이야기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시를 인용한 제목의 이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여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로코 카사블랑카로 떠난다. 그런데 예약해 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지갑과 여권을 도둑 맞는다. 가지고 있던 모든 돈, 신용카드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경찰을 불렀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려 그녀의 것이라며 처음 보는 여권과 신용카드를 건네는 경찰. 그녀는 호텔 직원과 경찰 사이에 뭔가 얽힌 관계가 있음을 감지하고, 잃어버린 돈과 자신의 소지품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난데없이 자신의 신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녀는 자기 손에 쥐어진 낯선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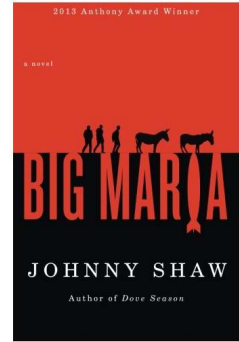
다. 범죄 행위라는 불안감도 들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가 생겼다는 생각에 희안하게도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낮선 신분으로 살아남겠다는 그녀의 전략은 어느 영화 감독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이어진다. 유명한 영화배우의 대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지고, 그녀는 카사블랑카의 밤 속으로 점점 더 깊숙히 들어간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원래의 자기 자신과 점점 더 멀어진다. 낮설고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여정이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녀의 모험은 한때 그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멀리 떼어 놓는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일까? 매혹적인 카사블랑카를 무대로 생생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자유와 한 인간의 정체성이 가진 힘, 그리고 자유의지를 깊이 고민하게 한다.

<저자 소개>

벤델라 비다(Vendela Vida)는 <뉴욕타임스>가 '주목할 만한 도서'로 선정한 《And Now You Can Go》와 《Let the Northern Lights Erase Your Name》를 쓴 작가로 2007년에는 '케이트 쇼팽 작가상'을 수상했다. 《Let the Northern Lights Erase Your Name》는 현재 영화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자는 잡지 <더 벨리버(The Believer)>의 첫 공동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제목 : BIG MARIA
가제 : 빅 마리아
저자 : Johnny Shaw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2년 9월 25일
분량 : 319 페이지
장르 : 소설



술과 가난, 질병으로 인생의 바닥을 맞본 세 남자, 빅 마리아 광산에 묻힌 금을 찾아 나서다

이제 마흔이 넘은 해리 슈미트베르거은 이름 때문에 어릴 때 붙은 별명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책없이 이런 이름을 붙인 부모님 탓에 해리는 학교를 옮길 때마다, 직장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가지고 놀려대는 농들을 상대해야 했다. “숫버거!” 정신없이 잠들어 있는 지금도 누군가가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그 별명을 불러댄다. “숫버거!” 겨우 눈을 뜨고 보니, 방이 아니다. 어딘가 낯선 공간에 있다. 어젯밤 한 잔 걸치던 술집 화장실에, 바지를 발목에 걸친 채 잠들어버린 것이다.

리키 맥브라이드는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오늘도 버스를 몰고 있다. 1977년식 오래된 스쿨버스는 이제 낡을 대로 낡아서 운전하기가 여간 고역인 게 아니다. 하지만 리키는 늘 꿈에 그리던, 에어컨이 장착된 고급 여행용 버스를 살 만큼 돈을 모을 때까지는 이 움직이는 폭탄과도 같은 노란색 버스를 몰아야 한다. 오늘도 아직 해가 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새벽 5시부터 리키는 버스운전을 시작했다. 팔로 베르데 양로원 앞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다. 아마 스무 명 넘는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태우고 멕시코 국경을 건너가면, 승객들은 차에서 내려 저렴한 값에 처방약을 쇼핑할 수 있다. 버스비는 공짜. 리키는 멕시코 로스 알고도네스에 있는 대여섯 곳의 약국으로부터 이렇게 하루 두 번 손님을 데려오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한편 프랭크 파체코는 노란 버스에서 한 명씩 내리는 노인들을 한심한 듯 바라보고 있다. 약 쇼핑을 하러 꼬박꼬박 오는 저 노인들을 프랭크는 극도로 싫어한다. 버스 운전사인 리키는 대놓고 추파를 던지는 노인들에게 어쩔 저렇게 친절한지 프랭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파체코 씨.” 그에게도 친절할 인사를 건네는 리키. 차가운 프랭크의 반응도 리키는 녀석 좋게 받아준다.

100년 전 한 광부가 숨겼다는 보물, 대포가 쏟아지는 산을 넘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여정

애리조나의 초콜릿 마운틴에는 100년 전 한 광부가 어느 왕의 몸값으로 받은 물건을 이 산 어딘가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하지만 현재 이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군 포격 연습장으로 바뀌어버려 그 보물을 찾을 엄두조차 내기 힘들어졌다. 늘 술에 절어 사는 해리와

암 투병 중이지만 결코 기죽지 않는 프랭크,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착실한 리키. 어수룩하고 모자란 이 세 사람이 팀을 이뤄, '빅마리아 광산'에 있다는 그 금을 찾아 나선다. 그것 만이 각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라 믿으며 말이다.

하지만 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절대 만만치 않다. 우선 호수 바닥에 가라 앉은 집에 파묻혀 있다는 보물 지도부터 찾아야 하고, 연방 정부의 폭발시험장을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고,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대포를 피해가며 산을 올라 광산으로 가야 한다. 멀쩡한 사람이라도 힘들 이 상황에, 한쪽 다리가 정상이 아닌 헤리와 한쪽 팔이 위축됐지만 바보스러울 정도로 만사에 긍정적인 리키, 그리고 암 환자였다 심장까지 별로 건강하지 않은 프랭크 세 사람이 덤벼든 것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세 사람은 무사히 금을 발견하고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을까? 척 팔라닉과 돈 윈슬로를 연상시키는 거친 이야기와 유머감각을 지닌 이 소설은 2013년 Anthony Awards를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 소개>

조니 쇼(Johnny Shaw)는 UCLA에서 희곡 작가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다양한 희곡 작품을 쓰는 한편 수년 동안 희곡 강의를 했다. 발표한 소설로는 《Dove Season: A Jimmy Veeder Fiasco》가 있으며, 온라인 계간지 <Blood & Tacos>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제목 : BAD ROMEO
가제 : 나쁜남자, 로미오
저자 : Leisa Rayven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15년 1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꿈에 그리던 브로드웨이 데뷔 무대, 대학 시절 아픔만 주었던 '로미오'와 재회하게 된 '줄리엣'

뉴욕 그로만 극장에서 예정된 리허설 첫 날, 캐시는 인파를 뚫고 달리는 중이다. 긴장감에서 흐르는 땀이 온몸에 가득 흘렀다. “아가씨라면 땀을 흘리지 않아, 그냥 발갈게 상기될 뿐이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캐시는 그 말대로라면 난 지금 꼭 돼지처럼 상기된 것 일 거라 혼자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극장에 들어서며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5분이나 늦었다. ‘그’의 얼굴을 또 봐야 하다니, 캐시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서 잠시 문을 못 열고 주춤했다. ‘아냐, 할 수 있어.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캐시는 한숨을 내쉬고, 이마로 문을 밀며 들어섰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옛 연인. 그와 몇 년 만에 또 다시 한 작품을 함께 하게 되다니.

에이전시에서 드디어 브로드웨이에 데뷔하게 됐다는 놀라운 뉴스를 전해온 날, 캐시는 에단 홀트와 다시 엮이게 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다. 회사에서는 상대 배역으로 정해진 그를 두고 침을 튀겨가며 캐시에게 열변을 토했다. 지금 연극계에서 가장 ‘핫’한 남자 배우이자 수상 경력도 화려하고, 재능도 많고, 어딜 가든 비명을 지르는 팬들이 따라다니는데다 끝내주게 잘 생긴 배우라며 말이다. 물론 회사가 캐시와 에단의 과거 일을 알 리는 없다. 그 동안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으니까. 캐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언급하면 그냥 자리를 피했다. 겨우 그 상처를 잊고 살았는데, 평생 원하던 꿈을 이루려는 이 때 하필 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상처 입고 연약한 두 남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케미스트리,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갈등들

캐시는 극장 문을 열면서, 서로 못 보고 지낸 세월 동안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잠깐 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하다가, 캐시는 왠지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 같아서 괜히 왈칵 화가 났다. ‘다 잊은 거야? 그 일들을?’ 캐시는 눈을 질끈 감고, 과거 에단이 주었던 상처들을 떠올렸다. 그 멍청한 핑계들과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말이다.

캐시 테일러와 에단 홀트는 연극학과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참하고 순수했던 캐시와 달리 에단은 나쁜 남자로 교내에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두 사람은 연습과 공연을 거듭하면서 극의 내용처럼 운명 같은 사랑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에

단은 캐시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그녀의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캐시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소화되지 않고 꼭 막힌 음식처럼 그녀의 가슴 한 구석에 돌덩이마냥 자리잡은 에단. 그런데 그 에단이 다시 앞에 나타나 또 그녀를 뒤흔들고 있다. 캐시는 두 번 다시 에단에게 상처 받지 않겠다고 단호히 결심하지만, 에단은 캐시에게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 받고 싶어 한다. 둘 사이에 감도는 묘한 긴장감은 무대 위 연기에도 그대로 녹아들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진전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 사람 앞에는 대학 시절의 비밀스러운 기억과 아픔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BAD ROMEO>는 현재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이스라엘에 판권이 계약되었으며 로맨스 소설 독자층에서 꼭 읽어야 할 로맨스라고 회자되는 소설이기도 하다.

<저자 소개>

리사 레이븐(Reisa Rayven)은 호주 브리스번에서 프리랜서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위 작품은 그녀의 데뷔작이며 후속작인 <BROKEN JULIET>은 올 4월에 출간 예정이다.

NON-FICTION

제목 : END UNEMPLOYMENT NOW

가제 : 실업 문제, 지금 바로 끝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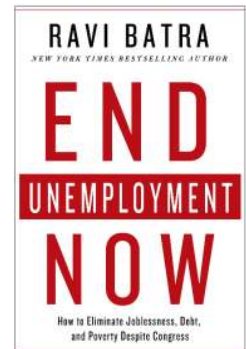
저자 : Ravi Batra

출판사: Palgrave Macmillan Trade

발행일: 2015년 5월 1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끝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실업률, 경제 전문가가 제시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

2000년 1월 1일, 전 세계는 여느 새해보다 두 배는 더 큰 기쁨을 만끽하며 고조된 분위기 속에 새로운 한 해를 맞았다. 그 흥분감은 단순히 새 천 년이 시작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1999년 다우존스 지수는 11,487 포인트로, 1990년 마지막 날 기록한 2,634포인트와 비교하면 십년 만에 무려 336 퍼센트가 급등하는 기록을 세웠다. 투자자들은 머리가 핑 돌 정도로 희열을 느꼈고, 앞으로도 그 핑크빛 전망이 지속되리라 생각했다. 전 세계가 평화롭고 번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근시안적인 전망이었다. 새 천년은 전례 없던 사건과 사고가 줄줄이 터지는 것으로 시작됐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 속에서 2000년 말, 득표수를 따지는 지루한 공방 끝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 신뢰는 크게 무너졌다. 이어진 2001년 9/11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미국은 이라크와의 갈등으로 수많은 생명과 엄청난 돈을 잃었고, 나라 전체가 베트남 전쟁 이후 최악의 갈등 속에 빠졌다. 2007년, 경제계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약 7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0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후 2010년대까지도 문제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침체일로인 경제 상황, 무능력한 의회의 도움 없이 실업 문제를 타파하는 방법

2010년, 전미경제연구소는 경기 대침체기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만 일자리 600만 개 이상이 사라진 이후 2010년까지 다시 일터로 돌아간 사람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정부 정책은 깊게 추락한 실업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단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무력한 의회의 도움 없이도 이 심각한 실업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바로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자유시장 조건에 관한 권한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 저자는 이를 통해 의회가 개입하지 않고도 실업의 늪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거대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이자율을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0-35 퍼센트보다 훨씬 낮은 5 퍼센트만 부과한다.
- 수익성 높은 대형 업체 간 합병은 강제 해고, 독점적 자본주의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소규모 업체를 저렴한 대출과 정부 사업 계약과 같은 형태로 지원한다. 1980년 이후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곳들은 바로 이 소규모 업체들인 반면, 대형 기업은 일자리를 없애는데 기여했다.
- 연금 생활자들의 수익은 이자율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채권을 발행한다.
- 석유 가격을 배럴당 20 달러 이하로 낮춘다. 그러면 가스 가격도 갤론 당 1.5 달러 이하로 떨어진다.

경제적 흐름을 족집게처럼 예견하는 전설적 인물로 명성이 자자한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지금 미국이, 그리고 세계가 이 깊은 경제적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의회의 절차를 다 건너뛰고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저자 소개>

라비 바트라(Ravi Batra) 박사는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저서 여섯 권을 발표했다. 이코노믹 인콰이어리(Economic Enquiry) 선정 '경제학 분야 슈퍼스타' 순위에서 3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타임> 등 주요 신문과 간행물에 글을 기고했으며 CBS, NBC 등 TV에도 다수 출연했다.

제목 : WHY YOU?: 101 Interview Questions You'll Never Fear Again

가제 : 왜 당신을 뽑아야 하죠?

저자 : James Reed

출판사: Penguin Books Ltd

발행일: 2015년 1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최고의 면접관, 구인 업체 담당자들에게 직접 듣는 바늘구멍 면접에서 통과하는 비결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한 두번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좌우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는 삶을 바꾸는 그 운명의 순간은 '면접'이라는 형태로 만나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 30분 내지 90분간 진행되는 인터뷰는 하루 내내 하는 일, 버는 돈의 규모, 죽는 시점, 사회적 지위, 개인적인 행복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

구직자들은 면접에 나올 만한 모든 질문을 고민하고 답을 전부 다 준비할 수는 없다. 수천 가지 예상 질문 중에서 대체 어떤 질문이 자신에게 주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직원 채용과 구직을 전문적으로 도와온 저자는 면접관 수백 명과 구직 면접을 본 경험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상세한 조사를 벌인 결과들을 토대로 이 책에서 그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면접에 들어가기 전 네 가지 마음가짐을 제시한다. 첫째, 면접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원래 자신의 모습이다. 둘째, 잘 쓴 이력서나 좋은 학력보다 자신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셋째, 모든 면접 질문은 항상 몇 가지의 결정적인 질문의 변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채용자에게 메꾸어야 할 일자리는 풀어야 할 문제거리일 뿐이다.

저자는 전통적인 인터뷰 질문 15개와 더불어 커리어 목표, 인성, 능력에 대한 질문과 에둘러 표현되는 질문들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101가지 질문을 다룬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15가지 질문에 들어가는 "왜 지원하게 되셨습니까?"의 숨겨진 의미는 "당신이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라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전략은 바로 모든 문장에서 당신의 직무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말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 능력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면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부터 별난 질문까지,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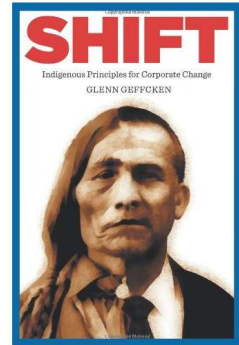
저자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컨설팅 전문업체가 그간 가장 영향력 있는 업체 면접관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질문,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과 대답

을 만들어내는 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자기 소개 해보세요.’, ‘자신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와 같은 전통적인 질문부터 ‘이 펜을 지금 제게 한 번 팔아보세요.’, ‘서울 시내에 신호등은 몇 개나 있을까요?’ 같은 난해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면접관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질문 이면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 책은 서양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구직자들에게 효과적인 면접 가이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제임스 리드(James Reed)는 하버드 경제대학원을 졸업하고, 매년 전 세계 수십 만 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구인구직 전문업체 리드(REED)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제목 : SHIFT
가제 : 전환
저자 : Glenn Geffcken
출판사: iUniverse
발행일: 2014년 3월 11일
분량 : 202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기업, 조직의 성공에 필수 요소로 자리한 조직 문화의 변화, 원시부족의 역사에서 해답을 찾다

‘패러다임(인식 체계)의 전환’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 전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낸 회사 경영진들에게 이 문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관련 책들이 무수히 탄생했고, 수많은 작가, 컨설턴트, 기업체 간부들이 어떻게 하면 인식 전환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경영학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들이나 교과서들은 한 조직체의 문화와 인식 전환을 이윤과 직결시켜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거대한 조직체에서 구성원들이 일련의 특정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규모가 중간 정도, 혹은 아주 작은 회사라면? 조직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가 바뀌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마디로 발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그 해답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 업계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미신에 가깝고 제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류가 가진 고유한 지도 방식의 가치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현대 상업계에서 그 동안 크게 간과되어 왔지만 실제 활용도는 정반대라고 밝힌다.

이 책에는 다소 특이하고 이례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일관성 있게, 성실히 실천에 옮기면 꼭 필요한 문화적 인식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방법이 담겨 있다. 저자는 머나먼 옛날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현대 사회가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 저자는 원시 부족민 사회에 문화적 인식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가 존재하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화가 영속되고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원리는 현대 상업계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기업과 조직의 문화를 자연, 인간성, 직원 등 구성 인력과의 조화를 되찾고 동시에 사람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창의성, 혁신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

기록된 역사보다 더 오랜 세월 이어진 원시사회의 문화와 인식 변화를 이끈 핵심 원리

상업 분야를 발전시킨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결 같이 조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는 정체기에 있거나 그저그런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조직, 혹은 단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직이 변화와 혁신, 조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문화적인 방식과 경로를 제시한다. 그 핵심 원리는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번영과 조화를 유지하며 살아온 전 세계 토착 사회의 공통적인 기본 원칙이다. 원시 사회 문화에 담긴 깊은 지혜와 그것이 구성원 전체의 핵심적인 행동, 믿음, 가치, 윤리 등 인식 전환의 주요 대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저자가 직접 상업계에 24년간 머무르면서 겪은 일화, 경험, 그리고 북미 토착민들의 문화와 종교를 철저히 연구한 18년의 세월을 접목시켜 조직 대변혁의 방향과 방법을 정리했다. 문화가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색다르지만 효과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글렌 게프켄(Glenn Geffcken)은 영업, 대규모 행사 기획, 출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일하다가 각 업체의 변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돕는 컨설팅 업체 'Balanced Is'를 설립했다.

제목 : HOW TO BE ALONE WITHOUT FEELING LONELY

가제 : 외롭지 않게 혼자 지내는 법

저자 : Ida Greene

출판사: PSI Publishers

발행일: 2013년 12월 30일

분량 : 9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협력, 단합, '함께'를 강조하는 사회,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과민한 두려움을 깨치는 방법

혼자서 살아가려면 책임이 따른다. 몸이 아프면 돌봐줄 사람도 없다. 병이 나거나 낙상을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 혼자 있으면 겁이 덜컥 불안해질 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벌어지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각종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 왔다. 혼자 사는 것, 누가 나를 돌봐주나 하는 걱정은 두려움, 걱정, 불안감의 원인이 된다. 때로는 그 걱정이 너무 커진 나머지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인 데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기 혼자 뿐이라고 느끼는 외로움의 감정은 폭력이나 학대 희생양과 동일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폭력의 경우, 직장에서나 사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폭력과 학대는 신체적인 형태뿐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인 형태로도 가해질 수 있다. 폭력이 정서적, 신체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졌지만 장기적으로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건강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야 알려졌다. 그 영향은 천식,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식생활과 활동, 심장 질환, 고혈압, 우울, 위와 장관의 질환, 당뇨병, 신경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폐 질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수많은 부분이 공포나 분노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감정을 여성들보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녀 모두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다. 그리고 감정은 우리 삶에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슬픔, 즐거움, 공포(두려움), 화(분노)인데, 여기에 수치심 혹은 부끄러움의 감정이 다섯 번째 감정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없는 감정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감정 상태에 대해 잘 알면, 자신의 경험과 반응에 대한 통제력도 커진다.

혼자 있는 시간의 두려움, 불안감을 없애려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

혼자 있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태를 지독하게 못 견디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 협력, 가족, 사랑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분위기도 큰

몹을 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인생, 노화 과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떨치고 바로 잡아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듯이, 노화 역시 아름다운 일이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를 원하고 좋아하고 혼자 있거나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이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 혹은 내가 하는 생각이 나 하나만의 생각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혹은 괜찮다, 괜찮지 않다고 구분짓고 판단하는데 있다. 그런 판단과 사고방식이 행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좋다, 나쁘다, 못생겼다, 예쁘다는 이유로 구분하고 거부하는 원인이 된다. 저자는 개인적인 삶과 직장 생활에서 각자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앞을 가로막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지침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저자가 다년간 축적한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아이다 그린(Ida Greene)은 결혼, 가족관계, 아동 문제에 관한 공인 치료사이자 공인 간호사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워크숍과 웹 세미나, 화상회의, 교육과정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왔다. 22권의 저서를 발표했으며 《Anger Management Skills for Children》은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여러 상을 수상했다.

제목 : HENRY MILLER ON WRITING
가제 : 헨리 밀러의 '글쓰기에 대하여'
저자 : Henry Miller
출판사: New Directions
발행일: 1964년 1월 17일
분량 : 216 페이지
장르 : 인문

Henry Miller on Writing



<북회귀선>의 작가 헨리 밀러, 그가 지나온 글쓰기라는 모험과 여정의 기록, 놀라운 지혜와 조연 영화로도 유명해진 작품 《북회귀선》의 작가 헨리 밀러. '헨리 밀러 문학재단'의 공동 설립자인 토마스 무어는 밀러가 남긴 글쓰기 기술과 실제에 대한 흥미진진한 지침을 모아 이 책을 엮었다. 밀러가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 작문 일정,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조연들이 가득하다. 독학으로 작가가 된 헨리 밀러는 단어를 활용하는 즐거움을 스스로 어떻게 터득했는지, 독서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책을 엮은 토마스 무어는 헨리 밀러가 글쓰기에 대해 밝힌 의견들을 짚막하게 모아 정리한 후 이를 본 독자들이 많은 자극을 얻었다는 의견을 알려 왔다고 회상한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밀러가 생각하는 창작의 기술과 방식을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 책을 통해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책의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문학 작가”에서는 헨리 밀러가 1917년부터 1927년까지 개인적으로 종종하던 다양한 작가들의 문체를 모방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문체를 구축하고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자신만의 목소리 찾기”는 밀러가 고유한 글쓰기 방식을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세 번째 “작가의 일”에서는 헨리 밀러가 작품을 준비하면서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마지막 네 번째 “글쓰기와 음란성”은 음란성과 그것이 작가를 예술가로 생각한 밀러의 의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글과 함께 제시한다. 토마스 무어는 바로 이 내용이 밀러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독학으로 작가가 된 헨리 밀러가 직접 경험하고 실감한 글쓰기의 과정, 의미, 창의적 사고의 방법

작가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까지, 밀러가 남긴 놀라운 지혜와 조연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 글쓰기는 우리 삶처럼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떠난 항해와 같다.
- 좋다, 나쁘다는 표현은 나의 어휘목록에서 삭제했다.
- 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현실을 정말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 명료한 해석은 피하고, 간결성은 높이되 신비스러움은 높이려고 노력한다.
- 내가 기존에 알던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안정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
-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후진도 하고 옆길로도 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 이해한다는 건 미지의 대상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하고,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시적이면서도 직선적인 밀러의 어법을 통해, 글쓰기의 과정과 의미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헨리 밀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논란을 낳은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뉴욕시립대에 입학했으나 자퇴하고 사회의 규칙과 제도에 반발하며 독서와 글쓰기에 몰두했다. 《북회귀선》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과 작가로서의 확고한 지위, 명성을 얻었다. 1980년 작고했다.

제목 : A YEAR IN THE MAINE WOODS

가제 : 메인 주 숲속에서의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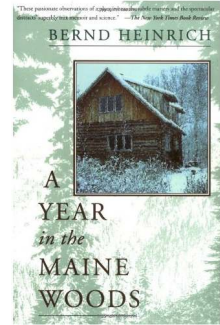
저자 : Bernd Heinrich

출판사: Da Capo Press

발행일: 1995년 11월 8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반복되는 생활을 박차고 외딴 숲속에서 1년을 지낸 동식물학 박사, 생명의 의미를 재발견하다

버몬트 대학교의 동물학 교수인 저자는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쳐 메인 주 서쪽, 외딴 숲속에 들어가 세상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며 살아보기로 결심한다. 그의 숲속 생활은 전기도, 하수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작은 오두막에서 어느 해 5월 말부터 시작됐다. 4륜 자동차로 800미터 정도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야 겨우 보이는 곳, 등산로 입구까지 나가야 우편함이 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그 우편함보다 더 먼 도로 부근까지 가야 있는 그 곳에서 저자는 직접 나무를 베고, 통나무로 집을 고치고, 땅을 파서 변소를 만들고, 채소를 심으며 바쁘게 지낸다. 가족들, 친구들과 연락을 나누기 위해 이웃집 별채에 전화와 자동응답기까지 설치하고, 수도물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홀로 공부하고 글을 썼다.

그의 곁에는 '잭'이라는 이름의 까마귀가 늘 함께 했다. 저자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애완동물로 생각하던 이 잭을 관찰하고, 지나가던 자동차에 목숨을 잃은 동물들을 요리하고, 가을이면 떨어진 낙엽의 다채로운 색깔을 하나하나 끝없는 목록으로 기록하고('밝은 레몬빛 노란색', '붉은색 작은 반점이 있는 노란색' 등), 통나무 집에 쳐들어온 파리 수를 세고(1만 2,800 마리, 또는 9컵하고도 반 컵 등), 쥐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 후 올리브유를 가열한 팬에 집어 넣는다') 보낸다. 모기, 검은 파리, 쥐 등과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달리기를 하고, 휴식도 하고, 짬을 내 숲이 가르쳐준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명상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들과 현장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숲의 완전한 평형 상태, 별채를 짓는 과정을 하나하나 읽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숲속에서 혼자 지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전기, 수도, 사람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홀로 지낸 1년의 시간, 거대한 자연 속 드라마

동식물 연구자이자 과학자인 저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25년의 세월 동안 서류를 만들고, 메모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고, 연구 지원금을 신청하고, 논문을 쓰면서 지냈지만 늘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숲에서 홀로 살아보는 것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이 갈망은 저자가 10살 때, 독일 북부의 어느 숲에서 가족들과 6년간 난민 생활을 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당시에도 숲에서 함께 지낸 까마귀 한 마리와 더불어 딱정벌레를 수집하면서 보낸 기억이 생생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이후 그 때처럼, 그 어린 시절처럼 세상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느끼며 사는 날만을 간절히 꿈꾸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자연 속에서 신선하고 맑은 자연의 마법 속에 젖어 생활하는 것. 당시를 떠올리면 번쩍, 하고 솟아나는 생생한 기억을 다시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자는 메인 주의 숲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저자는 1년을 보낸 그 숲 속에서 크고 넓은 길보다는 자그마한 것, 자그마한 길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한 무리의 소 떼와 더불어 숲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도끼로 직접 통나무를 쪼개고, 사슴을 쫓고, 나방의 날개짓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평화와 고요함, 자연과의 조화가 어떤 의미인지 새삼 깨닫는다. 그렇게 한 해 동안 ‘미묘한 것들, 주의를 끄는 굉장한 것들’과 더불어 살면서, 저자는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존재에서도 극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살아 있는 것, 그 의미를 재발견한 한 남자의 이야기다.

<저자 소개>

베른트 하인리히(Bern Heinrich)는 버몬트 대학교의 동물학 교수로 《Ravens in Winter》, 《아버지의 오래된 숲》(국내 2011년 번역 출간), 《숲에 사는 즐거움》(국내 2005년 번역 출간) 등 여러 편의 저서를 발표했다. 《Bumblebee Economics》는 ‘국립 도서상’ 후보에 올랐다.